

자녀를 영어유치원에 보내는 어머니들의 경험에 대한 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 of Mothers Sending Their Children to English Kindergarten

이율이 · 양성은*

인하대학교 소비자 아동학전공

Yi, Yule · Yang, Sungeun

Consumer & Child Studies Major, Inha University

Abstract

This research is exploratory in considering the unique socio-cultural context of South Korea, where the present government is responding to the demand for English language training. The study asked the question: What do mothers experience when sending their young children to a private English institute, so called English kindergarten, instead of a regular preschool? A qualitative approach was used to analyze the in-depth interviews with 19 mothers who sent their young child to an English kindergarten. Mothers stated that their young child needs to be a competent English speaker. The mothers expected that an English kindergarten would prepare their child better for the elementary school English curriculum than a regular preschool. The study revealed that English kindergartens symbolized the precedence and the privileges of the elite because of their high tuition fees, native-speaker teachers, and small class sizes. The mothers showed a sense of pride and vicarious satisfaction from sending their child to an English kindergarten. However, the mothers recognized that English kindergartens put more emphasis on cognitive learning instead of the social development of children. It was almost impossible for mothers to communicate with the native-speaker teachers about their child. The mothers seemed to overlook their child's struggle to adapt to an English Kindergarten. The findings of the study raise issues concerning the boom of teaching young children English in Korea.

Keywords : English Kindergarten, Qualitative Study

I. 문제제기

우리나라 가계의 2008년도 교육비 지출은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3조원 넘게 늘어나 사상 최대 규모인 40조원에 달했으며, 이중 사교육비가 19조원으로 47%를 차지하였다(“팔년 만에”, 2009). 사교육의 비중이 커지는 가운데 특히 외국어교육분야의 지출이 늘고 있다. 통계청(2008)이 발표한 2007년 사업체 현황

에서도 교육서비스업이 전년 대비 4.8% 증가하였고, 그 중 외국어학원은 가장 큰 폭인 24.6%로 성장하였다.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교육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가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의무화하고, 영어몰입식 교육정책을 표방하면서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교육에 대한 관심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학계에서도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고 있으나

* Corresponding author: Yang, Sungeun
Tel: 032-860-8117, Fax: 032-865-5228
E-mail: syang@inha.ac.kr

아직까지 현황에 대한 피상적 기술에 그치고 있다. 물론 조기영어교육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합의된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미흡하다. 이로 인해, 조기영어교육의 장단점에 대한 객관적 정보, 효과성에 대한 체계적 근거, 명확한 교육적 신념 없이 조기영어교육을 실시하는 부모가 증가하고 있다(양옥승 외, 2001).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논쟁 속에서 혼란을 느낀 부모들은 주위에서 조기영어교육에 참여하는 부모들이 많아지는 것을 목격하면서 불안감을 갖고(황혜신, 2002), 고액의 교육비를 부담하며 자녀를 조기영어교육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특히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학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2조 2항에 따르면, 외국어학원은 “보통 교과에 속하지 않은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과정을 실시하는 곳”으로 정의된다. 이에 따르면, 영어유치원이란 용어는 법적으로 타당한 표현이 아니며, 취학 전 유아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중점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교육대상의 특성상 일반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어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영어유치원이란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조기영어교육이라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계의 논쟁을 넘어서 자녀의 조기영어교육을 결정하는 부모에게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조기영어교육이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들의 선택 동기와 그에 따른 경험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부모의 동기, 신념, 경험 등에 대한 이해 없이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현실적인 제안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자녀를 영어유치원에 보내는 어머니들의 의사결정과정과 영어유치원에서 겪는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연구는 실태와 인식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최근에 와서 그 효과성에 관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마송희, 2008). 먼저, 조기영어교육의 실태에 관한 연구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어특별활동이 유아교육법상 부적합하지만 학부모의 요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그 내용과 방법도 유아교육과정 안에서 일관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며, 영어교재에 따라 외부강사에 의해 별개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김순환, 2008; 양옥승 외, 2001; 차지인, 2003).

조기영어교육이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연구들은 주로 발달적 타당성 여부(마송희, 2003)를 중심으로 조기영어교육이 유아의 모국어 및 사회성발달에 미치는 영향(하연희, 천희영, 2005), 이중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황혜신, 2004), 창의성과의 관계(우남희, 2007) 등을 분석하고 있다. 조기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는 학계의 찬반론이 계속 되고 있지만, 지나친 조기영어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한 연구들(신의진, 2002; 우남희 외, 2002)은 현재의 조기영어수준이 과도하며, 병리적 발달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한편, 영어유치원의 선행학습이 초등학교의 영어 습득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설명한 연구들도 있다(서현아 외, 2003; 윤유진, 2008). 특히 영어유치원의 영어몰입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들(김보영, 2001; 김영진, 2000; 윤유진, 2003)은 영어몰입교육을 받는 유아들이 영어몰입프로그램을 받지 않는 유아들보다 영어어휘, 발음, 말하기, 청취, 알파벳 인지능력 등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영어몰입교육을 받는 유아들이 그렇지 않은 유아들보다 영어에 노출된 시간이 길고, 언어적 자극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점수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조기영어교육과 관련된 부모변인에 관한 양적연구도 일부 이루어졌다. 장준희(2006)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언어행동이 유아의 언어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귀옥과 우남희(2008)는 아버지의 학력과 월수입, 어머니의 영어능력이 유아의 영어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자녀의 성취에 대한 스트레스가 조기영어교육과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지영, 2003). 조기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분석한 연구들(박수진, 2001; 황혜신, 2002)은 어머니들이 유아기부터 조기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며, 일찍 시작 할수록 자녀의 학업성취에 유리하다고 평가한 점을 보고하였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실태 파악, 조기영어교육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조기영어교육과 부모변인에 대한 양적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자녀교육의 의사결정자인 부모가 어떠한 동기로 조기교육을 실시하는가에 대한 심층적 고찰이 미흡하며, 조기교육을 실시하면서 겪는 경험에 대한 과정분석이 이루어지지 못

한 한계를 보인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의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동기와 자녀를 영어유치원에 보내면서 겪는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질적연구법을 이용하였다.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면접 시점에 자녀를 10개월 이상 영어유치원에 보낸 경험이 있는 19명의 어머니들이다. 연구참여자 준거를 “영어유치원에 자녀를 보낸 경험이 10개월 이상인 어머니들”로 한 이유는 영어유치원의 교육과정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최소한 1년에 가까이 영어유치원의 교육과정을 경험해야만 연구주제와 관련된 의미있는 진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3월 입학 시점부터 자료수집 시점(11월-12월)까지를 고

려했을 때 영어유치원을 10개월 이상 보낸 경험이 있는 어머니들이 연구참여자로 선정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30대 중후반의 고학력 주부들로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거주하였다. 연구참여자 중 16명이 전업주부이며, 가구의 월수입은 3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하였다. 면접당시 영어유치원을 보내는 자녀의 연령은 만 3세가 12명이고, 만 4세가 7명이었다. 연구참여자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07년 11월-12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영어유치원에 보내는 어머니들의 섭외는 편의표집에 의해 진행되었다. 섭외된 대상 중 연구참여자 준거에 맞는 어머니들을 선별하고, 이들에게 연구윤리에 따라 연구내용과 절차를 설명하였다. 연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이 이루어졌고, 면접내용은 녹음된 후 전사되었다.

면접의 내용은 영어유치원에 보내게 된 배경, 동기, 교

<표 1> 연구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사례 | 나이(만) | 학력 | 직업 | 남편직업 | 대상 자녀 | | 월 가구 수입 (만 원) | 거주지 | 다니는 기관 |
|----|-------|------|-------|------|-------|----|------------------|---------|-------------|
| | | | | | 나이(만) | 성별 | | | |
| 1 | 30대중반 | 무응답 | 주부 | 사업 | 3 | 여 | 300 이상 | 인천 연수구 | Poly |
| 2 | 30대중반 | 대학원졸 | 대학 강사 | 사업 | 3 | 남 | 500 | 서울 강남구 | LCI 키즈클럽 |
| 3 | 30대중반 | 무응답 | 주부 | 사업 | 4 | 남 | 500 | 서울 강남구 | LCI 키즈클럽 |
| 4 | 32 | 대졸 | 주부 | 약사 | 4 | 남 | 800 | 구리시 도농동 | 서강 SLP |
| 5 | 33 | 대졸 | 주부 | 사업 | 3 | 남 | 5-600 | 구리시 인창동 | Wonder land |
| 6 | 36 | 대졸 | 주부 | 사업 | 3 | 여 | 500 | 인천 연수구 | Poly |
| 7 | 33 | 대학원졸 | 주부 | 연구원 | 3 | 여 | 300 | 인천 연수구 | Poly |
| 8 | 37 | 대졸 | 주부 | 사업 | 3 | 남 | 500 | 부천 원미구 | 서강 SLP |
| 9 | 44 | 전문대졸 | 주부 | 사업 | 3 | 여 | 600 | 인천 연수구 | Poly |
| 10 | 34 | 대졸 | 주부 | 회사원 | 3 | 남 | 300 | 인천 연수구 | Poly |
| 11 | 36 | 대졸 | 주부 | 의사 | 3 | 여 | 650 | 인천 연수구 | LCI 키즈클럽 |
| 12 | 37 | 대졸 | 주부 | 사업 | 4 | 남 | 5-600 | 부천 소사구 | Brighton |
| 13 | 37 | 대졸 | 주부 | 사업 | 4 | 여 | 600 | 부천 중동구 | Brighton |
| 14 | 37 | 대졸 | 주부 | 회사원 | 3 | 남 | 1000 | 서울 양천구 | LCI 키즈클럽 |
| 15 | 35 | 대졸 | 주부 | 회사원 | 3 | 여 | 600 | 서울 양천구 | LCI 키즈클럽 |
| 16 | 36 | 무응답 | 육아 휴직 | 무응답 | 4 | 여 | 600 | 서울 중랑구 | YBM ECC |
| 17 | 33 | 무응답 | 주부 | 회사원 | 3 | 여 | 1000 | 서울 양천구 | Poly |
| 18 | 35 | 대졸 | 주부 | 회사원 | 4 | 여 | 350 | 인천 남동구 | Wonder land |
| 19 | 37 | 전문대졸 | 휴직중 | 무응답 | 4 | 남 | 700 | 인천 남동구 | Wonder land |

(* 연구참여자들이 응답하지 않은 부분은 무응답으로 처리하였다.)

(* 사례 6은 남편 사업을 보조하는 일도 병행함.)

육과정에 대한 경험, 장단점에 대한 평가 등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참여자 면접 시 15명은 개별면접을 하고, 4명은 연구참여자들의 요구로 두 명씩 면접하였다. 면접은 연구참여자의 편의를 고려한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면접 시간은 평균 9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면접 외에도 부가적인 자료로 영어유치원 안내책자, 설명회 자료, 신문기사 등을 수집하였고, 이를 통해 영어유치원 교육과정 및 일과운영에 대한 정보를 보충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의 자료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의 면접 내용을 반복해서 읽으며 전체내용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의 경험과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입장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였다. 둘째, 자료에 대한 줄단위 분석(line-by-line analysis)을 시행하였다. 각 연구참여자의 면접 내용을 해체하여 주요 의미단위들을 추출하였다. 셋째, 분석한 의미단위를 유사한 개념들로 묶어 범주화하였다. 넷째, 범주들 간의 구조를 파악하여 중심주제를 제시하였다. 자료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동료연구자의 조언(debriefing)을 경청하였다. 자료분석의 각 단계마다 공동연구자간의 논의가 이루어졌고, 기초 결과를 동료연구자들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피드백을 받는 과정이 반복하여 이루어졌다.

IV. 연구 결과

1. 영어유치원을 보내는 동기

1) “영어필수사회”라는 인식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을 “영어필수사회”(사례 17)로 인식하였다. 어머니들은 영어구사능력을 국제화 시대에 기본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조기영어교육을 자녀교육의 필수항목으로 여기고 있었다.

요즘에는 글로벌 시대라서 영어 없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세계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언어의 장벽을 넘어야겠다는 생각은 기본이고요. 장애를 없애주려고요. [영어유치원을 보내는] 첫 번째 목표는 아이가 영어에 능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어에 능통해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요. (사례 6)

요즘 영어 못하는 사람이 없어서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영어가 기본이 될 텐데, 그래서 영어 잘하라고 보내는 거지요.

요즘 워낙 영어를 많이 가르치니까요. 못하는 애들이 없어서 걱정이예요. 제 욕심이 더 크지요. 더 잘하길 바래요. 영어는 계속 배워도 끝이 없는 거니까요. (사례 1)

어머니들은 영어필수 사회에서 자녀들이 영어를 모국 어처럼 말하고, 원어민처럼 유창한 발음을 가진 “영어 능통자”(사례 6)가 되길 바란다. 이를 위해 조기영어교육을 강조하며, “엄마는 한계가 있어서”(사례 6) 영어교육을 “집에서 못해 주니까”(사례 17) 영어유치원을 보낸다고 이야기했다.

2) 경쟁적 조기성취 의지

어머니들이 자녀를 영어유치원에 보내는 동기는 “영어필수사회”라는 인식과 함께 자녀를 남보다 앞서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자신의 자녀가 동년배보다 영어를 더 잘하고, 빨리 성취하기를 기대하였다. “영어교육은 미래사회를 위한 준비작업”(사례 11)이므로 조기에 가르쳐 경쟁적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기대하는 점은 영어를 잘할 수 있고, 빨리 습득해서 남들보다 영어를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사례 4)

자녀의 영어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식되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라도 교육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남편이 저한테 그랬어요. 지금의 60만원이 1년에 700달러지만, 나중에 이 가치를 돈으로 따질 게 아니라고. **를 영어유치원에 보내는 그 가치가 나중에 더 할 것이라고 지금의 700만원이 비싸긴 하지만 그게 나중에 [이득이라고]. (사례 16)

또한 어머니들은 자녀가 또래경쟁에서 뒤쳐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끼기까지 하였다.

엄마들이 두려운 건 그런 거죠.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우리 애 기죽으면 어떻게 하나?” 정말로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이 되면 보내는 거죠. (사례 10)

3) 사회적 관계망의 강화

연구참여자들은 “워낙 외국에 나갔다 온 애들이 많은”(사례 3) 환경에서 살고, 주변에서 자녀를 데리고 유학을 하는 어머니 등을 접하면서 조기영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즉, 사회관계망인 “어머니 모임”에서 조기영어교육을 하고 있는 주변사람들을 보면서 동기

화가 된다. 어머니 모임은 동년배 자녀를 키우는 “동네 엄마들”(사례 5)로서 특히 “조기영어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들”(사례 15)의 모임이다. 이 모임에서 어머니들은 다른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통해 조기영어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엄마들의 입소문”(사례 10)으로 영어유치원의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제 딸에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워낙 엄마들이 많이 시키니까요. 우리 애가 잘한다고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 영어유치원이 오전에는 유치원을 하고, 오후에는 학원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엄마들이 다 좋다고 해요. (사례 1)

엄마들끼리 서로 일반유치원이 어떻고, 영어유치원이 어떻고 말들을 하니까. 결국에 무슨 잡지에 나오거나 책에 나오거나 이런 것보다 엄마들의 입소문이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사례 14)

한편, 영어유치원내에서도 어머니 모임이 따로 생성되어 정기적인 모임이 되기도 한다. 같은 영어유치원에 보낸다는 동질감으로 어머니들 간의 연대가 형성되어 교육 내용이나 운영안내 등을 공유한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들의 사회적 관계망이 넓어지고, 그 연대감도 강화된다.

여기는 소수다보니까. 사실 큰 내용이 아니어도, 무슨 수업이 생겼다 그러면 설명회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해 자주 모임을 가져요. 엄마들끼리 많이 보게 되고, 서로 그런 모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느끼니까. 정기적인 모임을 갖기로 했고. (사례 7)

반 별로 모임이 있는데 한 번씩 모여 애들 정보도 알고,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밥 한 끼 먹으면서 이런 저런 얘기도 나오고, 교육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봤을 때 요렇게 2, 3번 만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례 3)

2. 영어유치원에서의 경험

1) 영어유치원의 프로그램 구성

어머니들은 영어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면서 일반유치원과 다른 일과 운영을 경험하게 된다. 먼저, 영어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은 차량을 이용해 등하원을 하고, 점심 식사를 포함한 반일제 수업을 받는다. 유아들은 동일 연령에서의 수준별 교육을 받으며, 반을 담당하는 담임교사(원어민이나 한국인)와 특정교과목 교사에게 교육을 받는다. 기관에 따라서 “들어가지마자 영어가 시작되고, 한국말을 쓰면 안 되는”(사례 17) 곳도 있고, “일반 유치원과 같이 놀이도 하고 한국말이 허용되는”(사례 13) 기관도 있다.

아침 9시 반부터 1시40분까지... 한 달에 한 번씩 그 커리큘럼 그런 게 오긴 와요. 우선 나이별로, 연차별로 그렇게 반이 나뉘져요. 한 반에는 한 8명 정도고요. 한 반에 선생님이 두 분 들어가세요. 보조 선생님이 한 분 더 들어가시죠. (사례 8)

일주일 내내 프로그램이 다 다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미국에 있는 유치원처럼, science나 math나 play시간이나 art를 해요. 오전에는 주로 영어로 된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영어로 이런 쪽의 수업을 배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례 14)

영어유치원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현장견학(field trip)을 나가며, 연중행사로 “할로윈 축제”와 공개수업을 한다. 이때에는 부모들도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어머니들은 가정통신문을 통해 교육계획 및 교육일정을 전달받고, 한국인 상담교사와 주 1회 이상 전화로 자녀들의 원내 생활과 교육진도를 안내받는다. 영어유치원에서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영어유치원 기관별 운영표

| 번호 | 기관명 | 교육 시간 | 비용(매월) | 교사 체계 | 교육 방식 | 한국어 사용 | 과제 여부 | 입학시험 여부 |
|----|--------------------|-------|---------|-------------------|-------|--------|-------|---------|
| 1 | Poly | 3 | 80만원 이상 | 주: 원어민 보조: 한국인 | 학습식 | x | o | o |
| 2 | YBM ECC | 6 | 60만원 | 한국인 원어민 2담임제 | 학습식 | o | o | o |
| 3 | Wonder land | 6 | 65만원 | 한국인 원어민 2담임제 | 학습식 | x | o | o |
| 4 | LCI 키즈클럽 | 5 | 80만원 이상 | 주: 원어민 보조: 한국인 | 놀이식 | x | x | o |
| 5 | Brighton (한솔교육) | 3 | 50만원 | 한국인 원어민 2담임제 | 놀이식 | o | x | o |
| 6 | 서강 SLP | 5 | 60~80만원 | 한국인 원어민 2담임제 | 놀이식 | o | o | o |

* 공통 사항: 차량운행, 점심제공, 동일연령간 수준별 반구성, 할로윈 축제, 소풍 (현장학습포함), 전화상담, 교육계획안과 가정통신문, 소수정예(교사: 아동비율= 1:10내외)

영어유치원은 “원어민 선생님과 대화”(사례 18)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소수정예로 구성된 반에서 원어민과 빈번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짐으로 어머니들은 자녀의 영어구사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소수가 그게 장점이지요. 개개인으로 선생님을 아무래도 일대일로 접하게 되는 기회가 많아지잖아요. 여러 명보다는 아무래도 말할 기회가 한번이라도 더 생기니까, 원어민하고 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수가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사실 비싼 거고. (사례 10)

어머니들은 기관에 따라 교육시간, 교육비용, 교사체계, 교육방식, 한국어 사용여부, 과제와 시험여부 등을 다르게 경험하였다. 영어유치원들은 전반적으로 3시간-6시간의 수업을 운영하며, 교육비는 매월 50만원-80만원 이상이였다. 교육비에는 교육비, 교재비, 식대비, 차량이용비, 각종 부대비용 등이 포함된다. 기관에 따라서는 원어민 담임과 한국인 부담임으로 배치하거나 한국인과 원어민 모두 담임으로 하기도 한다. 어머니들은 한국인 교사와 상담을 하면서도, 영어교사로 인정하기보다는 “옆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사례 7) 대상으로 보았다.

어머니들은 영어유치원의 교육방식을 “놀이식”과 “학습식”으로 구분하였다.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놀이시간이 있고 다른 교과를 병행하는 곳을 놀이식수업으로 구분하고, 학습내용 및 과제중심의 진행을 학습식이라고 보았다. 영어유치원에서 제시하는 과제는 책을 읽거나 테이프 듣기, 영어유치원의 멀티미디어 내용을 복습하기, 영어단어 쓰기, 주제발표인 Show & Tell 등이 있었다. 과제와 함께 정기적인 단어시험과 말하기 테스트 등의 시험이 이루어지며, 영어유치원 입학에 위한 시험도 치러야한다.

2) 인지학습 중심의 교육과정

어머니들은 영어유치원의 인지학습 중심 교육과정을 경험하면서, 자녀의 과제와 시험을 돕게 된다. 과제는 주제발표인 Show & Tell(사례 9), 단어쓰기(사례 11), 책 읽기(사례 17) 등이 있다. 과제의 수준이 높아 유아들이 혼자하기보다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영어 위주로 우리 애한테 숙제도 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숙제를 수요일, 금요일마다 내줘요. 알파벳 쓰는 거랑 단어 알파벳에 해당하는 거. K면 K에 해당하는 단어를 꼭 다섯 번씩 써오기 같

은 숙제를 내줘요. (사례 16)

영어유치원 보낸다고 가만히 엄마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계속 봐줘야하고 엄마가 해줘야 할 게 많아요. Show & Tell 하는 순서가 되면 엄마의 숙제가 돼서 정신없이 준비하죠. 애들이 집에서 해온 걸 나와서 이야기하는 건데, 앞에 나와 발표하는 것이니 너무 좋아해요. (사례 1)

영어유치원은 입학시험과 정기적인 영어시험이 있다. 특히 입학시험을 위해 미리 예비과정을 수강하기도 한다(사례 1, 사례 5). 일반적으로 만 3세부터 영어유치원에 다니게 되면 입학시험이 없지만, 만 4세 이상이 입학할 경우 시험을 보았다. 일반적으로 영어유치원에서는 예비과정을 만들어 선행학습을 유도하고 있었다.

학기 시작 전에 벌써 설명회를 하고, 먼저 위밍업을 시키는 거예요. 30-40만원 정도의 교육비로 애들을 먼저 모아서 개네들을 위밍업을 시켰죠. 그 애들은 인제 3월에 딱 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때 처음 들어왔던 애들하고 이 애들은 벌써 또 레벨이 틀러지는 거예요. (사례 5)

영어유치원을 가기 위한 입학시험이 있는데, 그걸 보기 전에 5개월을 공부한 거죠. 유치원 테스트 통과를 위해 따로 또 프로그램 하는 게 있어요. 입학시험의 준비과정이라고 해요. (사례 6)

3. 영어유치원에 대한 평가

1) 유아의 적응

유아가 영어유치원에 처음가면 낯선 환경과 사람들 속에서 3시간 이상 외국어인 영어를 듣고 말해야하는 상황에 놓인다. 그래서 유아들은 영어유치원에 입학한 후 공포감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이상행동이나 부적응을 보이기도 한다. 어머니들은 자녀를 영어유치원에 보내면서 초기 적응에 주의를 기울인다.

들어가갈 때 테스트를 했는데 약간 레벨이 높은 반에 들어간 거예요. A클래스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애는 그게 힘들었던가 봐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나 봐요. 외국인 선생님들하고 말하기도 싫고, 그 시간이 너무 싫다고 하고. 그 때 애가 자긴 영어가 제일 싫다고 막 이렇게 얘길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사례 18)

애가 계속 선생님은 얘기하는데 자기는 이게 얘기가 안 되니까... 막 손톱을 물어뜯어가지고 손톱이 없는 거야. (사례 2)

경우에 따라 부적응으로 인해 일반유치원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녀들이 적응하리라고 보며, 초기 부적응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교육수준이 높아질 때마다 자녀들은 “슬

럼프”(사례 11)를 보이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체로 적응하여 재미있게 다닌다고 이야기했다.

그래도 가서 뭐하면 되게 재미있어 해요. 애들 처음에는 스트레스 받아 하는데 또 뭐 지나면, 금세 잊어버리고... (사례 9)
아이는 영어유치원 가는 거 좋아해요. 영어 책보는 것[과제로 내준]도 알아서 하고, 주말에 안가면 왜 안가냐고 아쉬워하며 물어요. (사례 4)

2) 어머니의 만족

어머니들은 자녀의 영어구사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보면서 영어유치원에 보낸 것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교육의 효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 어머니들은 자신의 선택에 만족하고 자신의 교육적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영어 책을 잘 읽는 모습을 보면서”(사례 19), “남들과 발음에서 차이를 느꼈을 때”(사례 14), “영어가 막 튀어나올 때”(사례 12) 만족한다고 말했다. 특별히 해외여행이나 길에서 외국인을 만날 경우 “자연스럽게 말을 걸거나 관심을 보이는 모습”(사례 4)을 보면서 어머니의 기대가 실현되었음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영어유치원에 보내길 잘했다고 생각할 때는 뭐.. 말할 때 (웃음) 영어로 말할 때가 가장 보람을 느끼죠. 그때 잘했다고 생각해요. 가장 보람 느낄 때는 영어로 몇 마디 할 때요. (사례 13)
어빠 같은 경우도 영어유치원을 좋아하는 이유가 언어가 되니까.. 좋은 대학을 나와도 영어가 안 나오고 애들이 멍하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애들은 이제 다 친구예요. 빨강머리, 노랑머리 다 친구야. 겁을 안내요. (사례 12)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를 일반유치원이 아닌 영어유치원에 보낸다는 것 자체에서 만족감을 느끼기도 했다. 자녀가 어느 기관을 다니는가는 부모의 소득수준과 사회적 지위를 말해 준다고 생각했다. 즉, 자녀를 영어유치원에 보낸다는 것은 아이의 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고 있으며, 자녀를 위해 “남들과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계층”(사례 10)임을 알려준다고 보았다. 영어유치원은 “일반유치원 보내는 엄마들이 엄두를 못내는 교육비를 내는”(사례 9) 곳이므로 “일반유치원을 보내는 엄마들의 부러움”(사례 4)을 받으며 부모 자신의 능력에 만족하기도 하였다.

엄마의 대리만족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런 건 좀 있어요. 가방 하나를 메고 다녀도 일반유치원인지, 어린이집인지 가방인지 알 수 있잖아요. 아이가 영어유치원 가방을 메고

가는 걸 보면 좀 으쓱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요. (사례 5)

엄마들은 돈 있으면 다 [영어유치원에] 보내요. 돈이 있으면 다 보내고 싶어 해요. 영어유치원어요. 영어에 대한 환경에... 돈만 있으면 이런 유치원에 다 보내고 싶어해요. (사례 19)

3) 영어유치원의 한계

영어유치원을 보내는 어머니들은 영어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기관의 시설이나 법적 기준을 문제시하지 않았다. 영어유치원이 학원의 일종으로 학원법에 속하는 대상임을 알지만 영어교육에 직접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학원 법에 따르는 학원이지.. 어학원이예요. 근데 별로 뭐.. 솔직히 학원에 보내서 내용이 좋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죠. 엄마들은 신경 안 쓰는 거 같은데요. (사례 9)

한편, 어머니들은 “언어를 배우려고 유치원 정규 프로그램을 포기”(사례 17)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로 인해 인성교육의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도 인식하지만, 영어가 우선시되기 때문에 영어유치원을 선호하는 것이다. 어머니들은 자녀의 유아기 발달에 적합한 사회정서적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그보다는 영어구사능력을 위해 영어유치원을 선택하였다.

일반유치원에서는 인성이잖아요. 애들을 바르게, 그러니까 바르게 키워 된다는 그런 것이잖아요. 아이한테는 나중에 일생을 생각해보면 이때가 제일 행복한 시기일 것 같더라고요. 일반유치원을 보내고 싶어도 영어 때문에(웃음)... 그놈의 영어가 뭔지(웃음)... 유치원 선생님이 되게 좋을 수 있는데, 이 영어 때문에(웃음) 그런 것을 다 포기하고, 좋은 기억들을 다 포기하고 [영어유치원에] 보내죠. 솔직히 5세면 애기인데... 완전 학원, 말로만 영어유치원이지 결국은 학원이잖아요. 영어만 하는 학원에 보내는 거죠. (사례 11)

아쉬운 거는 아무래도 영어유치원이다보니까 그런[사회정서 발달에 관한] 커리큘럼 자체는 작아요. 여윌게 활동할 수 있을 만한 영역도 없고, 외국인이 애들을 데리고 나갔을 경우에 통솔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사례 8)

어머니들은 영어유치원 원어민 교사의 자격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지만, 기관의 규모나 평판에 의존해 “믿고 맡긴다”(사례 5)라는 식으로 신뢰도를 나타냈다. 실제적으로 원어민 교사 개인의 인적정보를 정확하게 알아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큰 학원을 선택하는 이유가 일단 그거예요. 자기네들이 인증서다 뭐다 해서 원어민교사들에 대해서 로비에 다 붙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봐도 잘 모르잖아요. 그게 진짜인지 뭔지 잘 모르는데, 큰 학원이라는 것 때문에 좀 믿는 편이고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확인해 볼 방법이 없으니까. (사례 10)

선생님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고요. 원어민 선생님 같은 경우는 테솔 자격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직접보지는 못했어요. 솔직히 한국에 있는 뭐... 원어민 선생님들 자격에 대해서는... 글썽요. 믿을 수 없다고 하지만, 뭐 어떻게 해요. 믿고 보내야지. 내가 선택했으니까. 다 일일이 각 나라에 확인해 볼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잘 하세요. 맞을 거예요. (사례 13)

영어유치원의 또 다른 한계점으로 교사진들과의 의사소통을 지적할 수 있다. 어머니들은 전화로 자녀들의 영어유치원 생활과 영어수준에 대한 안내를 받는다. 하지만, 연구참여자 어머니 19명중 14명은 영어로 말하지 못했다. “영어가 딸려서”(사례 7) 담임 원어민 교사를 직접 만나 상담은 하지 못하고, 상담을 전담하는 교사를 통해 원어민 교사의 평가를 “전달 받는”(사례 6) 것이 일반적이었다. 어머니 역시 원어민 교사에게 궁금하거나 교육적으로 바라는 점을 “한국인 교사에게 의뢰”(사례 16)하였다.

저는 [영어로 대화를] 잘 못해요. 직접 전화통화는 하지 않아요. 그렇게 직접 하면 좋을 텐데, 한국선생님과 다르게 외국 선생님들에 대해 뭐라고 그럴까... 우리나라 영어학원에 있는 영어 선생님들을 봐도 엄마가 직접적으로 자유롭게 대화가 안 되니까... (사례 8)

수업을 하는 선생님하고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원어민 선생님이어서 저는 영어가 딸려서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걸 제 삼자를 통해서, 중간 역할을 하는 선생님이 계셔서... 그 선생님을 매개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례 7)

V. 논의

본 연구는 조기영어교육을 위해 자녀를 영어유치원에 보내는 19명의 어머니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영어유치원에 보내는 동기와 경험을 질적방법으로 탐색하였다. 자녀를 영어유치원에 보내는 어머니들은 우리 사회를 영어필수사회로 인식하고 조기교육으로 영어를 중요시하였다. 어머니들은 자녀가 또래보다 초기에 영어구사능력을 성취하여 경쟁에서도 우월하기를 기대하였다. 어머니들은 사회관계망인 어머니모임을 통해서 조기영어교육에 동기화되고, 정보를 지원받는다. 이는 부모의 신념에 따라 그가 속한 문화에서 요구되는 관점을 반영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교육의 성공을 평가한다는 안지영(2003)의 연구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어머니들은 자녀를 영어능통자로 키우기 위해 “슈퍼우먼”(사례 19)이 되어 자신의 모든 자원을 자녀들에게 집중시켰다. 즉, 자녀의 영어구사능력을 위해 영어유치원의 예비반을 등록하고, 평가중심의 교육과정에 따르며 자녀의 과제와 시험을 위한 부가적인 노력도 병행하였다. 어머니들의 이러한 교육적 지원활동은 부모의 교육적 성향과 가치에 따라 조기교육의 방향과 강도가 정해진다는 연구(박수진, 2001)와 연결되는 부분이다. 어머니들의 우선시하는 가치가 무엇이나에 따라 자녀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달라지고, 교육경험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들은 자녀를 영어유치원을 보내면서 기존의 일반유치원과 차별되는 운영시스템을 선호하였다. 즉, 원어민 담임교사, 소수정예 반 구성, 영어회화 중심 수업, 과제와 시험 등의 교육시스템이 대표적이다. 어머니들은 유아기 자녀에게 사회정서적 교육이 필요하고 법적으로 요구되는 물리적 환경조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영어구사능력을 초기에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을 모두 감수하고 영어유치원을 택했다. 어머니들은 영어유치원의 과제수행과 발표준비를 위해 시간, 노력, 경제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이를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들의 초기부적응과 잦은 “슬럼프”(사례 11)를 인식하지만, 시간이 가면 적응할 것이란 기대로 자신의 선택을 지속한다.

유아의 조기영어교육을 위해 영어유치원에 보내는 것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먼저, 유아기 자녀에게 발달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 고려되어야 한다. 유아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서는 그들의 잠재력과 흥미를 키워주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성인의 관점으로 교육 내용과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적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신체운동발달, 인지발달, 사회정서발달을 아우르는 통합적 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유아의 학습을 저해하는 경쟁적인 선행학습은 지양되어야 한다. 어머니들이 영어유치원에 보내는 주요 동기 중의 하나는 남보다 먼저, 뛰어나게 영어능력을 성취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남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하기 위한 선행학습이 교육적 의미가 있는지 반성해보아야 한다. 경쟁적 선행학습으로 습득된 지식과 자발적 학습의 지로 확장된 사고의 가치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외국어 교육에서 동기부재가 실패의 가장 큰 원인

으로 지적되고 있음을 상기하면서(Chamber, 1994), 학습자의 자발적 학습동기를 과소평가하는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유아들에게 적합한 교육 환경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영어유치원의 물리적 환경이 유아에게 부적합하고, 원어민 교사의 전문성도 확인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도 자녀를 영어유치원에 보냈다. 그러나 유아에게 물리적, 인적 환경은 결정적인 교육요소이다. 교육환경은 학습자의 동기 및 학습효과를 증대시킨다. 유아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물리적 환경, 발달영역을 통합하는 교육내용, 교사의 전문성이 필수불가결하다(홍성심, 2006).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참여자들의 특성을 들 수 있다.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일반적으로 영어유치원에 대해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 추후연구는 영어유치원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불만족한 경험을 가진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여 비교,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가 어머니의 경험에 국한됨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영어유치원을 다니는 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영어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들의 동기와 경험을 질적연구법으로 고찰하면서,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제기하였다. 자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부모의 주요 역할이 사교육으로 표현되는 현상을 직시하면서,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한다.

주제어 : 영어유치원, 질적연구

참 고 문 헌

김보영. (2001). 영어몰입프로그램이 유아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순환. (2008). 유치원에서의 영어교육 현황과 담당교사의 인식. 열린유아교육연구, 13(5), 327-355.
 김영진. (2000). 조기영어교육에서의 몰입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유치원 몰입프로그램 진단과 EFL집단과의 학습효과 비교). 한국영어언어과학학회지, 5(1), 12-26.
 마송희. (2003). 유아의 상위언어능력과 모국어 및 외국어 어휘력간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3(2), 267-289.

마송희. (2008). 유아교육기관 영어교육의 타당성과 바람직한 실천 방안. 열린유아교육연구, 13(4), 221-245.
 박수진. (2001). 유아기 자녀를 둔 학부모의 조기, 특기교육에 관한 실태분석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현아, 최미현, 좌승화, 천희영. (2003). 취학전후 영어교육과 초등학교 3학년의 영어유창성의 관계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0(4), 299-319.
 신의진. (2002). 조기교육과 발달병리적 문제-한국조기교육의 현황과 과제. 2002 한국아동학회총계학술대회 발표집, 29-42.
 안지영. (2003). 유아기자녀의 조기교육 실태와 어머니의 양육신념, 양육스트레스 및 성취 압력과의 관계. 대안가정학회지, 41(11), 95-111.
 양옥승, 김진영, 김현희, 김연실. (2001). 한국사립유치원 영어교육의 실태. 아동학회지, 22(4), 299-313.
 우남희. (2007). 유아의 영어교육 경험과 지능, 창의성과의 관계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4(4), 453-474.
 우남희, 서유현, 강영은. (2002). 영유아에 대한 조기영어교육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2002-16.
 윤유진. (2003). ESL과 EFL 학습프로그램과 아동의 영어능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유진. (2008). 영어몰입 프로그램, 영어능력과 문화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줄까? 과주: 한국학술정보.
 이귀옥, 우남희. (2008). 부모변인과 유아의 영어 학습과의 관계연구. 생활과학연구, 13, 73-82.
 장준희. (2006).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과 유아 언어 능력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차지인. (2003). 조기영어교육에 관한 부모의 인식 및 실태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 (2008). 2007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잠정 결과. 팔년 만에 두 배로..... 사교육비 19조원 절반 차지. (2009, 3. 30). 조선일보, 자료검색일 2009.
 하연희, 천희영. (2005). 유아의 영어교육 시작연령과 교육기관에 따른 모국어와 사회성발달. 아동연구, 14, 35-53.
 홍성심. (2006). 효과적인 영어교육을 위한 원어민 영어교사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연구. 현대영어영문학, 50(3), 134-164.
 황혜신. (2002). 조기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 한국아동학회 총계학술대회자료집, 131-148.
 황혜신. (2004). 조기영어교육이 유아의 이중 언어발달에 미

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3(4), 497-506.

Chamber, G. (1994). A snapshot in motivation at 10+,
13+ and 16+. *Language Learning Journal*. 9,
14-16.

접 수 일 :
2009. 06. 11.
수정완료일 :